

## 2018학년도 수시모집 논술고사우수자 전형 논술고사 기출문제 (A형) 1교시 예시답안

### [ 문항 1 ] 언어영역

구분	내용
예시답안	<p>제시문 (나)에서 이름이 불리기 전의 '성애'는 자연 현상에 불과했지만, 화자가 '성애'에 이름을 부여하자 자연 현상 이상의 의미를 가진다. 화자가 차창의 '성애'를 보면서 '처녀, 총각, 아이, 어른' 등의 정체성을 부여하자 '성애'는 '누군가의 막막한 한숨'이나 '정열의 숨결' 등의 의미를 지닌 '성애꽃'으로 탈바꿈한다. 이는 (가)의 ㉠과 상통한다. ㉠의 '그'가 화자의 명명으로 '꽃'이 된 것처럼 (나)의 '성애' 또한 사람들의 애환과 정열의 감정적 집합체인 '성애꽃'으로 가치를 부여받는다. 또한 (나)의 화자는 차창에 '이마를 대고' 버스를 탄 사람들의 삶에 공감하며, '금지된 친구'를 회상하는 모습을 통해 '성애꽃'에 그리움의 가치를 부여한다.</p> <p>반면 (다)에서는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가 무의미하다고 주장한다. 사물의 가치는 사물의 이름이 아니라 사물이 지니는 내적인 가치와 개인이 갖는 사물에 대한 경험에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다)는 사물의 내적 가치만 중시하고 이름이 부여하는 가치의 중요함을 간과했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피아를 구별하는 역할뿐만 아니라, 다른 사물과의 연관성이나, 사물을 통해 얻을 수 있는 가치, 또는 인간의 정서를 대변하고 위로할 수 있는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이다. (다)와 같이 이름이 사물에 부여하는 가치를 등한시 하는 주장은 사물의 종합적 가치를 저해할 가능성이 존재한다는 점에서 비판받을 수 있다.</p>
첨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제시문(가)의 ㉠에 나타난 상징적 시어들이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추론해서, 이를 토대로 제시문(나)를 다른 관점으로 해설하고 시속에 드러난 삶의 태도를 구체적으로 파악한 점이 우수하다. 제시문(나)의 '처녀, 총각, 아이, 어른', '친구' 시어에 함축된 삶의 현상을 정확하게 이해하였다.</li> <li>* 특히 제시문(가) ㉠에서 사물의 명명에 대한 가치를 제시문(다)의 논지로 추론하고 분석해내는 데 유연하게 이용한 것은 출제 의도를 정확하게 파악하고 있다고 볼 수 있다.</li> <li>* 그러나 답안의 결론으로서 논지를 '사물의 가치'에만 초점을 맞추고 있다는 점에서 아쉽다. 제시문(가)와 제시문(나)에 근거하면 사물에 이름을 붙이는 행위는 다른 사물과 특별한 연관성을 맺는 행위이며 사물에 특별한 정체성을 부여하는 행위이다. 제시문(다)와 같이 명명의 가치를 등한시하는 주장은 사물에 특별한 가치를 부여하고 싶은 인간의 특성을 고려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비판 받을 수 있다. 점까지 논지를 확장했으면 완성도 높은 답안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li> </ul>

[ 문항 2 ] 사회영역

구분	내용
예시답안	<p>제시문 (가)의 노키즈존과 노틴에이저존은 (나)의 관점에서 대중의 잘못된 인식을 확산시켜 유아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수 있는 위험요소이다. 제시문 (나)는 노키즈존과 노틴에이저존이 깨진 유리창과 같다고 본다. 깨진 유리창과 같은 사소한 변화가 '유아와 청소년은 시끄럽고 일탈행위를 한다'는 부정적 일반화라는 나비효과를 불러온다는 것이다. 깨진 유리창을 본 시민들이 건물주가 건물에 '무관심'하다는 일반화를 해 건물 자체가 망가진 것처럼 말이다. 이런 부정적 낙인효과가 노키즈존과 노틴에이저존으로 인해 확산되면 아이 부모나 청소년의 자유롭게 소비할 권리를 침해할 위험이 생긴다.</p> <p>이와 같은 위험에도 불구하고 유아와 청소년을 거부하는 가게가 용인된 이유는 근대 민법의 정신에 있다. 근대 민법에는 개인주의와 자유주의를 바탕으로 한 사적 자치의 원칙이 있다. 노키즈존과 노틴에이저존이 사적 자치의 원칙을 바탕으로 가게 주인과 손님의 개인 간 법률관계를 허용 받은 것이다. 물론 (나)의 관점에서 유아와 청소년의 권리를 침해할 우려가 있긴 하지만, 운영체 자체가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가게 주인은 자유에 의거해 손님을 받을 권리가 있다. 따라서 노키즈존과 노틴에이저존은 사회 부정의에 해당하는 제도가 아니다. 이는 (가)와 같은 제도가 무효화되지 않을 수 있음을 의미한다.</p>
첨삭평가	<ul style="list-style-type: none"> <li>* 본 답안은 논제의 요구를 정확하게 분석하여 논리적 전개에 따라 내용과 근거를 충실하게 제시한 답안이다. 특히 '깨진 유리창의 법칙'을 근거로 노키즈존과 노틴에이저존의 문제점을 정확히 분석하였으며, 이로 인해 확산될 수 있는 사회현상의 문제점을 논리적으로 추론하는 것을 성공적으로 보여주었다.</li> <li>* 또한 자유 민주주의 사회에서 통용되는 '사적 자치의 원칙'이 이러한 현상을 허용하는 제도적 근거로 작용하는 현대사회에서 일반 시민들에게 유의미한 메시지를 전달한다는 점에서 매우 돋보이는 답안이다.</li> <li>* 아쉬운 점은 자신이 알고 있는 사전 지식이나 개념을 문제의 맥락에 맞지 않게 사용했다는 점이다. '사회 정의에 위배될 수 있음'을 '사회 부정'이라고 표현한 것은 개념을 잘못 사용한 것이다. 이러한 오개념의 사용은 답안의 완성도를 떨어뜨리고 감점의 요인이 될 수 있다.</li> </ul>